

발행처: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발행인: 김용일 전화: 02-6977-6503 팩스: 0505-085-6503

최근 WM 팀장 확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지난(11월 18일 목요일) 회사측과 회의를 진행했던 내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지점 자체내에서 부지점장 또는 조장이라는 명칭 아래 권한도 없는 소규모의 팀의 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조합원들끼리 서로 힘든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직책자는 팀의 장에게만 압력을 가해 제대로 된 직책자 평가가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WM 팀장 확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직책을 부여하여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는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리자 양상으로 인해 영업 실적 압박이 예상되며 조합원들의 근로환경을 저해 시키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어 노동조합은 지난 목요일 회사측에 긴급 회동을 요청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 했습니다.

---

첫째: 지점장 산하 WM팀장의 확대제도는 지역본부장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본부장을 지점안으로 끌고 들어온 제도로 인지 될 수 있고, 팀간 과열 경쟁이 조장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권한부여 만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인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제도로 변질 될 수 있다.

둘째: 올해 이사대우 승진확대로 인해 계약직 상승율 증대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환경 노출 우려. 당사의 이사대우 승진은 계약직 양성으로 직급을 빙자하여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내몰아 버리는 수단으로 확대 될 수 있으며, 회사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여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고용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회사측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이 염려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계약직 증가로 인한 고용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 어떠한 것도 계획한 적이 없고, 본인이 거부한다면 절대 임원으로 승진 시킬 생각이 없다. 또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계약 종료를 현재까지 진행한 적이 없다.

회사측 내용을 듣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또다른 속내를 알 수 없기에 최소한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회사측에 아래와 같이 요구 했습니다.

노동조합 자체 조사로 확인해보니 합병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사대우로 승진한 사람들 중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임원은 약 85% 이상이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의 악화, 실적 저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직인 해당 임원들은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석매니저와 처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사대우(과거 우리 조합원, 앞으로 임원이 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 종료 통보 후 직책자가 면되면 본인 선택에 따라 승진 전 상태로 회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사항이 아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직원 육성 과정이라 주장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만 얘기합니다. 노동조합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회사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중 최초로 지역본부장 제도를 폐지 하였고 지점장 공모를 실시하여 조금씩 변화하려는 모습은 노동조합 역시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열어주고 원하는 직원들에게 직위 상승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누가 봐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노동조합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변화와 정책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근로환경을 더 힘들게  
가중 한다면 노동조합은 또 다시 회사 정책에 맞서 강력하게 싸울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규직원인 조합원들을 하루 아침에 지점장 승진과 더불어

이사대우라는 타이틀을 준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지 않고, 관리자를 옥죄여 조합원들 삶까지 어려움으로 전락시키고 얼마 못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금번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하거나 직책자로 임명 받은 분들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챙겨 추후에 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에 걸 맞는 임원승진을 단행했습니다. 임원 승진을 만 높여 그들 만의 잔치가 된다면 우리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은 분노할 것이며 회사의 그 어떤 정책에 함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측과 만난 자리에서 임원 승진을 상승에 맞게 직원 승진율도 기대하겠다 하였고 직원 승진율도 기존보다는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부터 노동조합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들도 아래 3가지 사항을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당사 직급별 직원 승진율 확인!**

**둘째: 누구나 원하는 정당한 임원 승진이 아닌, 계약직 양성을 위해 승진으로 느껴지는 행위 여부!**

**셋째: 관리자 증가에 따른 가중한 영업 실적 압박 및 부당함 확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에 경고한 위의 세가지 사항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여러분의 근로환경을 저해시키고, 고용환경이 불안으로 엄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견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행을 통해 동감하고 행동을 통해 감동주는**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일**